

# 전남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교통사고 최다

## 광주·전남 최근 3년간 53명 사고사...추락·익사 順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43.7% 보행중 발생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4~2016년 3년 동안 어린이 53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추락사고·익사사고 순이었다.

통계청이 3일 공개한 보고서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년'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비의도적 사고(질병·자살·타살 제외)로 숨진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53명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 22명, 전남에서는 31명이 숨

졌다. 비의도적 사고 가운데 23명(광주 8명·전남 15명)의 어린이는 자동차·자전거·선박 등 교통수단 탑승 중에 충돌·충격하거나 보행 중에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충돌하는 이른바 '운수사고'(교통사고)로 숨졌다. 다음으로, 추락사고 11명(광주 4명·전남 7명), 익사사고 11명(광주 7명·전남 4명)이었다. 광주·전남 어린이의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명과 4.1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교통사고 등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가 총 636명,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으로 조사됐다.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인천이 2.0명으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4.7명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0세가 10.5명(질식사·추락사 등)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10~14세는 0세의 20% 수준인 1.9명으로 집계됐다.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운수·42.5%), 질식(17.9%), 익사(14.5%), 추락(12.3%), 화재(3.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인천이 0.7명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과 경북이 2.0명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1.2명이었다. 비의도적 사고 중 연령별 1순위 사망원인은 0세 질식사고, 1~14세 운수사고였다.

이 기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270명)의 43.7%(118명)은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다.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자 78명 가운데 건물 추락 사고가 56.4%(44명)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져 숨진 사망사고도 9.0%(7명)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동차가 저절로 가고 있어”

3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유니브로(Uni-Bro) 광장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체험행사가 열렸다.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가 만든 차량에 탑승한 행사 참가자가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고 있다. 호남대는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수피아여중 학생 등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 '스쿨존' 지정

### 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가 구성돼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통학로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대·지정되고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에서도 불량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위해 제품의 리콜 이행현황 점검제를 도입해 리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어린이집 감시 사각지대 23곳

### 'CCTV 의무화' 어겨

CCTV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광주·전남 어린이집 23곳은 내부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24일 기준, 전국 3만9493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365곳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의 대책마련 요구에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해질 19:20, 달뜨기 23:10, 달지기 08:40

5월은 푸르구나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8/23	보성	맑음	6/21
목포	맑음	10/20	순천	맑음	8/22
여수	맑음	9/22	영광	맑음	9/21
나주	맑음	6/22	진도	맑음	9/21
완도	맑음	11/22	전주	맑음	9/20
구례	맑음	5/23	군산	맑음	9/19
강진	맑음	7/22	홍원	맑음	5/21
해남	맑음	6/22	홍산도	맑음	10/18
장성	맑음	7/22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서~서	0.5~1.5	남서~서	0.5~1.0
남부	남해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남해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남해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남해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01	04:53
여수	21:56	16:43
	05:28	11:20
	17:15	23:53

◇주간 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	☁️	☀️	☀️	☀️	☀️	☀️
11/26	16/20	16/22	15/23	14/25	15/25	15/26

## 연휴 첫날 바람 쐬는...일요일은 비

### 광주·전남 5~7일 날씨

황금연휴(5~7일)가 시작되는 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6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연휴 첫날인 5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다소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은 어린이날인 5일 낮 최고 기온이 22~26도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6일에는 비가 오면서 16~20도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6일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6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3~7mm 수준으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전망이다.

7일(어린이날 대체휴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낮 최고기온이 20~22도를 보이며 화창한 날씨가 예상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까지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했지만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중소기업서 폭발사고...간부 사망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기업 간부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

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7분께 광주시 북구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에서 합금을 제조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업은 의료 제품 제작 3D 프린터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사고 당시 '그레늄 합금 제조 실험'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기업 간부 A(53)씨가 폭발

여과를 흡입한 기계 부품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급속을 녹여 분말로 제작하는 해당 기계는 A씨가 내부를 살펴보면 중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발사고가 난 기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정밀감식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이 제품은 '필요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탬프**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정에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움~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센터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RIE(8-16세)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창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35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